

한국어 {것}의 意味機能과 用法*

崔 圭 一

目 次

- | | |
|--------------------|------------------|
| I. 序 論 | IV. '것'의 用法 |
| II. 統辭·形態(音素)論的 考察 | 1. '것'의 使用實態와 原因 |
| 1. '것'의 類型 | 2. 漢文 翻譯의 경우 |
| 2. '것'의 變形(變異形態) | 3. 英文 翻譯의 경우 |
| III. 統辭·音味論的 考察 | V. 結 論 |
| 1. '것'의 意味機能(A) | |

I. 序 論

본 연구는 한국어의 단어 '것'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의 意味機能과 用法를 통사·형태와 통사·의미면에서 주로 살펴 그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일찌기 李崇寧(1975)은 '것'의 起源은 古代國語에 소급되는 것으로 보아, 前期中世國語에서 'kas~kas(갓~것)'의 대립형¹⁾을 다룰 것을 주장했다. '갓 對 것'의 대립은 15C 이전에 소멸된 듯하여 15C에는 '것'만이 쓰인 것 같다고 하면서 中世國語의 '것'에 대하여 살핀 적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것'의 起源과 발달과정 및 중세국어의 '것'에 관하여는 李崇寧으로 미루고, 1950년 이후 현재까지의 現代國語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①'것'의 結合類型에 따라 그 앞뒤의 말들과 맺는 통사 관계에서 여러가지의 多樣한 意味機能을 갖는 점과, ②'것'의 用法를 使用實態와 번역 경우 漢文, 英文 번역에서 '것'이 많이 사용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도록이면 '것'이 나타나는 分布를 細分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이 글은 제11회 국어학회 공동연구(1984.12.21~23)에서 발표한 내용을 국어교육 51·52호에 현대국어 {것}의 연구(1)의 제목으로 발표한 그 계속편으로 보충 보완하여 종합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것'의 형태를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때의 명사 형태는 'kas~kas'의 대립형으로 볼 수 있으나, 관형형이나 서술어 형태에서는 'kas~kas'의 형태로 볼 수 없음이 지적될 수 있다.

지금까지, 現代國語의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연구²⁾는 있었으나, ‘것’의 의미기능과 그 쓰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심을 가져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 국어의 수많은 어휘 중의 하나인 ‘것’에 대하여 그 본질을 밝혀 두는 일은 유용한 일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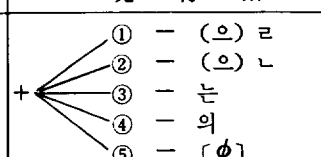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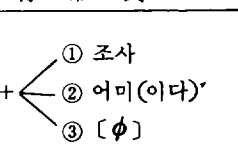
Ⅱ. 統辭·形態(音素)論的 考察

本章에서는 ‘것’이 앞뒤 여러 형식들과의 통사 결합 관계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의 類型과 그 變形(變異形態)에 중점을 두어 統辭·形態(音素)面에서 살피고자 한다.

1. ‘것’의 類型

‘것’의 유형³⁾을 통사구조상 결합되는 형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1) ‘것’의 先行結合關係와 (2) ‘것’의 後行結合關係로 나누어 본다. 먼저 ‘것’ 앞에 先行할 수 있는 形式을 보면 冠形化素 ①-(으)ㄴ, ②-(으)ㄴ, ③-는, ④-의, ⑤ 단어 생략 형태[ϕ] 등의 여러 語形들이 오며, ‘것’ 뒤에 결합되는 後行形式은 ①거의 모든 조사류[특수조사 포함], ②접미사가 붙기도 하며, ③어미 특히 ‘이다’의 모든 活用形과, ④조사나 어미 생략 형태[ϕ]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것’이 先·後行에 결합되는 ‘것’의 結合關係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것’의 結合關係

先行形式	先行素	것	後行形式
단어	+ 	것	+ (접사) + 

1) ‘것’의 先行結合關係

통사구조상 선행하는 形式들은 그림에서 ‘것’의 앞부분과 같은데, 이를 다시 단어 형태와 조어법에 따라 결합되는 類型을 보면 이러하다.

2) ‘것’의 성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說을 보면, 먼저 주시경(1910)은 ‘언잇’이라 하여 대임(대명사)의 한 가지로 보았고, Ramstedt(1939)는 ‘르것’을 mood(法)의 일종으로, 최현배(1937)는 ‘안용근 이름씨(불완전명사)’, 李熙昇(1955)은 ‘形式名詞’, 金敏洙(1960)는 依存名詞로 다루었다. 그러다가, 근래 變形生成文法의 관점에서 李孟盛(1968), 梁演錫(1972)은 名詞化素로, 李鴻培(1970)는 補文子(complementizer), 南基心(1977)은 補文字 또는 補文名詞로 보았고, 강범모(1983)는 ‘것’을 補文素 내지 補文素의 일부로 보지 않고 가장 중립성을 지닌 명사(보문명사)로 규정하고 있다.

3) 임홍빈(1974)은 ‘것’의 類型을 통사구문상 |것₁| ~ |것₂|의 다섯으로 잠정적 분류를 하여 그 특징을 살핀 바 있다.

A. 單語形態에 따라 結合되는 類型

- ① 단어 단독형(v. a)
 - ② '단어(n)+하다'型
 - ③ '단어(n)+되다'型
 - ④ '단어(n)+이다/아니다'型
- +관형형 [-ㄴ/ㄹ] 것
- ※ v=verb
a=adjective
n=noun

- 例 ① 본 것, 볼 것, 고운 것.
 ② 검토한 것, 만족한 것.
 ③ 인정된 것, 표현되는 것.
 ④ 사람인 것, 청자일 것. 보편적인 것. 먹지 않은 것(먹지 아니한 것) 등.

B. 造語法上的 結合類型

이는 다른 단어들과의 結合關係에 따른 統合形式인데, 이에는 선행 형식과 후행 형식이 있다.

① '관형사+것'의 통합형

이 [그, 저, 어느, 아무]+것→이것, 그것, 저것……등

㉠ 지시 관형사+것 : 이(그, 저)…것→이것, 저것……등

㉡ 성상 관형사+것 : 새(현)+것→새것, 같은+것→같은것 등

② 合成法에 의한 감탄사형

그+것+참→그것참, 그+것+보시오→거보시오

그+것+봐→거봐⁴⁾

③ 派生法에 의한 통합형

㉠ '접두사(수식어)+것'의 경우

공+것→공것, 깃+것→깃것(방언), 날+것→날것

들+것→들것, 상+것→상것, 생+것→생것, 속+것→속것(속곳, 방언)

잡+것→잡것, 뭇+것→뭇것, 헛+것→헛것(허깨비, 방언)

수+흥+것+수컷, 암+흥+것→암컷

※ ①과 ③의 경우 앞말 관형사와 접두사는 뒷말 '것'을 수식해 주는 기능을 한다.

㉡ '접두사+것+접미사'의 경우

군+것+질→군것질, 잡+것+질→잡것질

①, ②, ③은 '것'이 단어와의 통합관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 造語法에 따른 語形들이다.

④ 기타 慣用句 形式

보잘 + 것 + 없다→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하잘것없다(語源不分明)

4) 김계곤,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한글 157호,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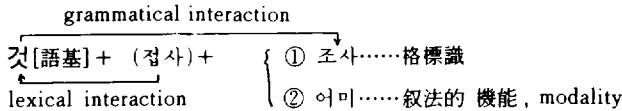
-ㄴ/ㄹ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 이는 일종의 句形式으로 다룬다.

문장에서 ①의 경우는 ‘대명사’, ②의 경우는 ‘감탄사형’, ③의 경우는 파생어로서 ‘명사’의 기능을 각각 하고 있다.

2) ‘것’의 後行 結合關係

여기에는 “것+(접사)+조사, 또는 어미”와의 結合形式이 대표적이다. ‘것’ 뒤에 어떤 조사나 어미⁵⁾가 통합되느냐에 따라 의미기능은 사뭇 달라진다. ‘것’ 뒤에 붙는 조사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標識(mark)가 된다. 문장에서 ‘것’이 선택이나, 비교나, 혹은 강조나, 서술이나를 나타내는 것은 ‘것’ 뒤에 결합되는 조사나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의미기능이 좌우된다. ‘것’ 뒤에 붙는 조사, 어미 또는 접사의 문법적 기능 관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것’ 뒤에 후행하는 조사는 格標識로서 문법적 교섭만을 하는 데 비해, 접사는 그 앞에 놓인 語基 ‘것’에 대하여 語彙的 交渉만을 한다.⁶⁾ 그리고 ‘것’ 뒤에 어미가 붙을 때는 modality(標相素) 내지 叙法的 機能⁷⁾을 표시하고 있다. 후행 형식의 語形들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것+조사

- 이, 은, 을, 의, 도, 과 격조사
- 만, 뿐, 밖에, 마다, 마저, 부터, 조차, 까지, 처고, 보다, 과도, 같이(비교격) 특수조사
- 으로서, 에까지, 보다도, 만으로, 만으로는, 까지도, 까지는, 에로외, 뿐이지만, 에라기보다는
..... 복합조사
- 이라고, 이라고도, 이라고는, 이라면, 이란다, 이냐에, 이라기보다는 인용격조사

5) 여기서 조사라함은 전통문법의 격조사는 물론이거니와 특수조사도 포함된다. 그리고 ‘것’은 모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한 보편성을 띠고 있으며 조사 외에 접사나 어미가 수없이 결합된다.

6) 洪思滿, 國語特殊助詞論, 1983, pp. 54~55.

7) ‘것’의 서법 기능을 통사적 결합 유형에서 선행어가 동사나 형용사냐에 따라서

- a. 동사+(으)ㄹ+것→명령
- b. 형용사+(으)ㄹ+것→당위
- c. 동사+(으)ㄹ+걸→후회·의지
- d. 형용사+동사+(으)ㄹ+걸→추측·의지
- e. 동사+(의)ㄹ+것이다→추측
- f. 동사, 형용사+어야/아야+보조용언+(으)ㄹ+것이다→당위

등의 서법을 나타내는 文을 형성하기도 한다.

② 것 + '어미[이다]'의 活用形

-이라, 이니라, 이더니라, 이로우나, 이로소이다, 일세, 이지요,

이나? 일까? 이겠지요? 입니까? 이오니까? 종지법어미

-이어(부사형), 인, 일(관형사형) 임, 이기(명사형)..... 전성법어미

-이면, 일진데, 일것같으면, 이므로, 이어야만, 일지라도,

일망정, 일지언정, 이거니와, 이런마는, 일뿐더러, 일수록 접속법어미

③ 것 + 접미사 : -들, 쯤, 처럼, 치고, 말이죠⁸⁾

④ 것 + 접미사 + 어미 : -들이라기보다는

以上에서 '것'이 그 先·後行에 결합되는 類型에 따라 '것'이 갖는 특성을 보면,

① '것'은 형태상 體言처럼 曲用을 하며,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관형형 [-ㄴ, -ㄹ, -는, -의] 뒤에 나타난다.

② '것'은 완전명사와 같이 모든 조사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나 접미사 또는 어미들을 두루 취한다. 그리고, 특히 '이다'의 活用形이 수없이 결합되어 多様な 叙法의 機能과 樣相(modality)을 보이고 있다.

③ '것'은 수식 또는 한정하는 先行語와 결합되어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하나의 단어와 같은 구실을 가지고 있다.

④ '것'은 통사상의 기능을 보면 완전명사가 갖는 문장의 모든 성분이 될 수 있고, 관형사와 用言의 관형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완전명사와 그 기능이 같다. 단지 완전명사는 자립형식(free form)인데 비해 '것'은 의존형식(bounding form)인 점⁹⁾이 다르다.

이리하여 불완전명사 '것'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제홀로는 아무런 뜻하는 바도 없고, 문장에서 독립된 기능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것'은 他語辭와 결합된 말에 어떤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게 하고 '것'은 형식의 뜻만을 나타내므로 다른 말에 붙는 附屬語로서의 통사적 의미기능을 띠고 있다. (자세한 것은 Ⅲ章에서 다룬다)

8) 관점에 따라 접미사(파생요소) 내지 조사(굴절요소)로 다룰 수 있다. 이들 動搖에 대해 김계곤(1976)은 대체로 보편성을 중시하여 조사로 보고, 高永根(1974)은 구조적 樣相에 치중하여 접미사로 다루려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것+말이죠'의 '말이죠'는 添辭로 볼 수도 있다.

9) 高永根(1970)은 '것'과 같은 불완전명사가 자립형식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불완전 명사를 일종의 準自立形式(semi-free form)으로 다루면서, 자립형식은 실질적인 觀念(notion)을 지시하는데 대하여 의존형식이나 준의존형식은 다만 형식적 관계를 지시한다고 하였다.

高永根, "現代國語의 準自立形式에 대한 연구", 語學研究 VI-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0.

2. ‘것’의 變形(變異形態)

오늘날 兒童語에서 많이 나타나는 “내꺼, 니꺼(네꺼)¹⁰⁾”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그거, 저거”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걸 먹어”, “저런게 있나”, “죽을꺼야”, “개도 갈꺼지만 나도 갈꺼”, “또 올꺼” 등으로 사용하는 말들에서 밑줄 친 부분의 말들을 ‘것’의 變形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交替形 내지 다른 形態素로 다룰 것인지를 李崇寧(1975)은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일단 ‘것’의 變形으로 다루어 論旨를 전개하고자 한다.

(1) { 그. 그건 이겁니다. } 당신은 아직 { 그. 이런걸 } 모를 { 그. 겁니다.
 { 나. 그것은 이것입니다. } { 나. 이런것을 } { 나. 것입니다.

(2) 농사에 필요한 節候라는 ㉠ 계 태양력에 근거했다는 ㉡ 걸 설마 이제야 알게된 ㉢ 건 아닐테고 태양력의 철후에 조차 구애됨이 없이…….

例文 (1)에서 그는 나의 준말 형태의 變形으로 볼 수 있다. 준말과 본디말의 사용에서 그의 준말형은 대체로 口語體的인 문장에서, 본디말형은 文語體的인 문장에서 흔히 사용되며, (2)의 ㉠은 ‘것이’, ㉡은 ‘것을’, ㉢은 ‘것은’의 준말 형태(축약형)로 볼 수 있는데, 준말 형태인 “계, 건, 걸”이 표현상 간편하며 文語體보다 口語體에서 즐겨 애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 대신 ‘것’으로 표기하면 붙여 써야 하고 띄어 써야 하는 差異 외에도 表現上 문맥에서의 語感이 같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의 語形들은 음운 형태상 일종의 준말(축약형)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형태음소론상 ‘것’이 일종의 語尾로 轉化된 경우이다.

① -건(=것은)

• 소수의 의견에 치우치면 남는건 절망뿐이다.

② -걸(=것을)~꺼

• 요즈음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걸 보니 슬퍼서……

③ -거(=것이)~꺼

a. 그베를 타면서 어릴때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b. 당신은 모르실꺼야.

c. 이거사(이것아) : 年下者를 두고 이룰때(이사람아)

10) 형태상 ‘나의것’, ‘너의것’에서 소유격조사 ‘의’가 생략되어 축약된 형태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경우에 따라 ‘오빠것’, ‘언니것’, ‘동생것’, ‘자기것’ 등으로 말하면서 ‘자기것’은 ‘자기의 것’이란 뜻이 아니라 ‘동생’, ‘오빠’, ‘언니’의 ‘것’을 두루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니꺼, 내꺼” 등은 비표준어로 일종의 口語(입말)이며, ‘너의 것’, ‘나의 것’은 文語(글말)로 볼 수 있다.

d. 거(그것) 참 훌륭하다.

e. 거 보오, 거 보게.

※여기 c.d.e의 '거'는 文頭に 쓰여 감탄사로 '그것'의 뜻으로 쓰인 말이다.

④ -게(=것이)~-게

• 팔고 가 죽이려는게 아닐까?

⑤ -겁(=것입)

• 문제가 없을 겁니다.

⑥ -르께(=르 것이니)~-르께¹¹⁾

a. 그래, 내일 꼭 올께(올겨야)

b. 내가 즐께 받아 보아라.

⑥ a의 '올께'는 '-르 것이니'로 代置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b의 '즐께'는 '즐 것이니'의 준 형태로서 '-르 터이니'로도 代置가 가능하므로 연결어미로 간주된다. 그러기에 '-르께'는 '-르 것이니'의 隨意的 變形으로 볼 수 있다.

以上에서 ①~⑥의 語形들은 形態音素論으로 볼 때 '것'이 語尾로 轉化된 경우이다. '것'이 원래는 불완전명사이나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어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며, 관용구적 어미의 범주에 소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 이 경우는 '것'이 불완전명사로서의 外形的 統合關係와 그 의미를 띠고 있지만, 隣接形式과 완전히 융합되어버린 것도 있다.(앞의 造語法上的 결합 유형 중 ①, ②, ③의 語形들도 이에 해당됨)

ㄱ. 내일은 비가 올께야(오르께야) cf. 올 것이야.

ㄴ. 벌써 갔는걸요(가쓰는걸요) cf. 갔는 것을요

ㄷ. 그 사람도 갈것같다(가르것같다) cf. 갈것과 같다.

이때의 '것'은 주로 後行形式과 드물게는 兩者와 융합되어서 불완전명사로서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하고 語幹에 接尾되어서 語尾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즉 '것'은 불완전명사의 속성을 잃고 語尾로 轉化된 것이다.¹²⁾

11) 형태음소론상 依存形式 가운데서 '-(으)르'로 시작되는 모든 어미들은 반드시 硬音으로 變異한다. 이를테면 "-(으)르수록, -(으)르지라도, -(으)르지" 등은 [-쑤-], [-께]로 변이된다. 이런 점에서 불완전명사 '것을', '-(으)르' 관형사형 뒤에서는 예외없이 硬音化되고 있다.

볼 것[-껏], 갈 것[-껏], 먹을 것[-껏]

이러한 사실은 불완전명사가 자립형식이 아닌 依存形式임을 傍證해준다. 자립형식에는 이런 현상 [변이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먹을 밥→*[-뻬]

12) 高永根, op. cit., p. 50.

Ⅲ. 統辭·意味論의 考察

1. ‘것’의 意味機能(A)

‘意味機能’이란 말에서 ‘機能’은 文法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意味’(meaning)’는 概念으로서의 의미를 뜻하게 된다. 허나 좁은 뜻에서는 兩者가 구분되지만 넓은 뜻에서는 문법적 기능도 의미에 포함되기에 本稿에서는 포괄적인 뜻으로 의미와 기능을 합쳐 意味機能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兩者가 뚜렷이 구별될 적에는 나누어 다루되 편의상 意味機能(A)와 意味機能(B)로 나누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의미란 무엇인가?’하는¹³⁾ 문제부터 제기되어야 한다.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¹⁴⁾ 원래 의미란 감각할 수 없는 하나의 認識作用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미를 記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는 그 단독만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오로지 문맥 속에서만이 제대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統辭·意味論의 기본 개념을 고려할 때, ‘것’이 완전명사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중심의미)를 일론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차이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것’은 어디까지나 문맥 속에서만이 그 뜻 파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것’의 의미기능을 파악할 때, ① ‘것’이 독립적으로 문장에 설 수 없다는 점, ② 뚜렷한 중심의미 없이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를 보여 준다는 점, ③ ‘것’의 그 앞뒤에 갖는 先行形式이나 後行形式이 일반 명사(완전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다음은 具體的인 例證을 들어 ‘것’의 의미기능을 統辭意味論의 立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13) 拙稿: 한국어 화용론의 기술과 의미해석, 1984, pp. 74~75.

14) 어문학연구회(1969: 165-171)의 의미 유형을 보면

{	기본적 의미(foundamental meaning)-主意, 중심의미
	문맥적 의미(contextual meaning)-副意, 주변의미
	정서적 의미(emotional meaning)-연상적, 주관적 의미

沈在箕 外 2명(1984: 19~24)는 단어의 의미 유형을

{	中心意味(conceptual meaning), 개념적의미(denotive meaning), 인식적의미(cognitive meaning)
	聯想意味(associative meaning)
	意圖的意味(intented meaning)

허발(1979)은 낱말발 이론에서 의미 유형을

{	공통의미
	개별의미 { 추상의미 구체의미 { 중심의미 주변의미

로 분류하고 있다.

1) 지시¹⁵⁾하는 기능

- (3) a.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 것은 감정의 자유다.
 b. 첫째, NP₁이 NP₂에게는 VP이다.
 둘째, NP₁이 NP₂를 V하게 한다.
 셋째, 첫째와 둘째를 共有하는 유형과 같은 ㉠ 것이 있고, 둘째 유형에 드는 ㉡ 것으로는 ㉢와 같은 ㉠ 것이 있으며, 셋째 유형에 드는 ㉣ 것으로는 ㉤와 같은 ㉠ 것이 대표적이다.

(3, a)의 '것'은 그 앞말 '슬퍼서 우는'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앞말 전체(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를 지시하며 일컫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3, b)에서 ㉠류의 '것'은 앞에 나온 해당 선행어를, ㉡류의 '것'은 앞에 나온 해당 선행 문장을 각각 지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음 (4, a, b)의 '것'은 그 뒤의 내용을 미리 豫示해서 지시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 (4) a. 어른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은 이리이러하다.)
 b. 아래의 것들은 알의 것과는 달리 단순한 형식명사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5, a)는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소유격 조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이미 하나의 대명사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것'의 형태[불완전명사]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래 불완전명사였던 것이고 지시 대명사나 소유격 조사와의 통합에서 '일반 사물의 지시'기능을 갖고있기에 여기에서 다루었다.

- (5) a. { 그것이 우리집 가보다.
 나는 헌것보다 새것을 좋아한다.
 내것이 네것보다 좋다.
 b. 나는 그 소설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로 어렴풋한 像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행복의 그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것,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것이거나 그 이전의 것들이다.

(5, b)의 밑선 부분의 '것'은 모두 선행어 '像'을 지시하고 있다. 다만 (5, b)에서 '것'과 '그것'의 차이는 '것'이 관형형 아래 쓰인 데 비해 '그것'은 '것'보다 좀더 강하고 분명하게 지시할 때 쓰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5, a)에서의 '것'은 '일반 사물의 지시'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2) 代用의 기능

代用은 대체로 그 앞에 나온 선행어나 선행 문장을 지시하면서 대신 쓰인 표현으로 반복을 피하

- 15) 지시하는 기능은 代用 기능과 관련되는데 좀더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기에 구별하여 보았다. 그리고 최근의 학문에서 '지시'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Lyons. J. (1981: 220~235)는 지시란 화자(언표행위자)와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 그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과의 사이에 유도되는 관련성을 말한다. 그리고 지시적 표현의 지시범위(referential range)는 그 언어에 있어서 그 표현 의미와 지시의미(denotation)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그 표현의 실제적 지시는 다양한 맥락 요소에 의해 좌우되며 지시적 표현에는 명사, 명사 중심의 명사구(noun-headed noun phrase), 대명사류가 있다고 하였다.

여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¹⁶⁾

앞의 '指示' 기능과 여기 '代用'의 기능 관계가 밀접하여 구별이 모호하므로 다음 (6)의 例文을 통하여 兩者를 識別해 보기로 한다.

(6) 식물의 분류법은 다윈의 $\left. \begin{array}{l} \text{ㄱ. 분류법} \\ \text{ㄴ. 분류} \\ \text{ㄷ. (방)법} \\ \text{ㄹ. 것} \end{array} \right\}$ 을(를) 따른다.

(6)에서 앞에 쓰인 말 '분류법' 대신에 ㄱ, ㄴ, ㄷ, ㄹ로 표현했을 때, ㄱ은 '분류법'이란 앞말을 그대로 반복했으며 ㄴ은 '분류법'의 '분류-'와 ㄷ은 '-(방)법'만을 [∅]로 대용하고 있지만 ㄹ의 '것'은 '분류법'이란 전체를 대신하고 있어 엄격히 말하여 ㄹ의 '것'만을 완전한 사물의 代用語라고 할 수 있다 (김일웅:1982). 그리고 (6, ㄱ, ㄴ, ㄷ, ㄹ)에서 '분류'나 '(방)법'은 여전히 그 말 자체가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것'은 그 단독만으로는 분명한 뜻을 알 수 없는 하나의 형식적, 지시적 뜻만을 가질 뿐이다.

(7) 네 시제는 내 것보다 좋다.

(8) 돈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김사장은 이제 그러한 $\left. \begin{array}{l} \text{ㄱ. 것} \\ \text{ㄴ. 사고방식} \end{array} \right\}$ 을 버렸다.

(9) 내가 잃은 것은 자유고, 얻은 것은 진리다.

- (10) a. 어제 먹은 떡이 상한 것이었나보다.
 b. 버린 물건 중에는 쓸만한 것도 있다.
 c. 이 책이 나에게서 하나도 볼 것 없다.
 d. 둘러봐도 나쁠 것은 하나도 없었다.

(7)의 '것'은 앞에 나온 '시제' 대신 쓰인 代用이며, (8)의 ㄱ과 ㄴ은 바로 앞의 지시어(그러한)와 함께 그 앞의 밑줄 친 부분의 말(돈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던)을 간편하게 표현한 代用形이며, (9)의 '것'은 심층 구조 속에서 |잃은, 얻은|의 객체로써 [+사물]의 代用表現이다. 그리고 (10)에서 (10, a, b)의 '것'은 앞에 쓰인 선행어 '떡'과 '물건'의 구체적인 명사를 각각 가리키고 있으며, (10, c, d)의 '것'은 문장 내에 '것'의 선행어가 없다. 선행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것'은 그 앞의 지시하는 말을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문맥적 상황에 따라 '것'이 가리키는 말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때의 '것'도 막연하지만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장 내에서의 선행어가 없는 代用的 경우는 마치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10)에서

16) 김일웅(1982)은 대용어의 표현은 간편을 위하여 또는 같은 말의 반복에서 오는 심리적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말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대체로 선행어나 선행문장보다는 짧은 것이 그 형식적 특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재기(1984)는 代用形(proform anaphora)의 표현에 ①'그, 자기'와 같은 대명사로써, ②'그사람', '그분'과 같은 '지시어+명사'로써, ③'짬+먹돌이'와 같은 별명으로써, ④'전자, 후자'와 같은 표현으로써, ⑤'것'과 같은 불완전명사로써 代用되어지는 명사구 대용형태(NP Anaphora), ⑥'그러하다, 하다'와 같은 동사구 대용형태(VP Anaphora)를 들고 있다.

(10, a, b)는 선행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앞의 具體名詞(선행어)를 지시하면서 쓰인 代用이요, (10.c, d)는 선행어가 없는 경우로서 막연하지만 추상명사에 해당하는 그 무엇을 지시하면서 대신 쓰인 代用이라 하겠다.

3) 叙述(설명)하는 기능

어떤 事物이나 概念에 대하여 그 定義를 말하거나 서술(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가 '것'이 갖는 기능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흔히 “은(는)/이란 ~-ㄴ 것이다”란 표현방식을 빌어 무엇에 대하여 그 정의를 내리거나 서술을 할 경우 '것'이 쓰이고 있다. 이때는 주로 '것'이 '이다'와 결합하여 “~은/이란 ~ 것이다”의 文型을 취한다.

- (11) a. 문법은(이란) 바르게 적고 바르게 말하는 記述인 것이다.
 b. 자율이란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는 일종의 자유인 것이다.
 c. 질서…… 편한 것, 자유로운 것, 아름다운 것.
- (12) a.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을 보람있고 뜻있게 사는 것이다.
 b. 학문이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 회의하는 것, 사색하는 것이다.

(11)에서 a, b는 “-은(이란) ~-ㄴ 것이다”의 文型을 취하여 ‘문법’과 ‘자율’에 대하여 그 정의(개념)를 서술(설명)하고 있으며, (11, c)는 일종의 口號的인 표현으로 “질서(란 일종의) 편한 것(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의 () 속의 말을 줄여 표현을 간편히 하여 인상깊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것’ 다음에 ‘이다’가 생략된 형으로 여기 ‘것’은 ‘질서’에 대하여 서술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11, c)의 표현에서 ‘것’은 일종의 “편안함, 자유로움, 아름다움”의 명사형을 句으로써 대신하면서 강조, 확인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리고 (12, a, b)는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물음에 대해 서술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4) 명령(요청)을 끝맺게 하는 기능

梁續錫(1976: 121~141)은 명령¹⁷⁾의 기능에는 ① 聽者 중심의 명령(요청)과, ② 話者 중심의 명령(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것’은 이 중 ①의 명령에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 (13-1) a. 모두 모일 것 ← (a'모두 모일 것이다.)
 b. 손대지 말 것 ← (b'손대지 말 것이다.)
 c. 기간내에 낼 것 ← (c'기간내에 낼 것이다.)
 d. 열심히 공부할 것 ← (d'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13-2) a. 모두 모입니다. (모이시오)
 b. 손대지 마시다. (마시오)
 c. 기간 내에 냅시다. (내시오)
 d. 열심히 공부 합시다. (공부하십시오)

17) 명령문은 話者가 의도하는 ‘동작 및 행위의 變化’를 聽者에게 指令하는 叙法의 일종이므로 동시에 서만이 명령문이 성립되며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령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은 話者가 명령(command) 하면서 요청(request)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3)에서 (13-1)의 a, b, c, d보다 (a' b' c' d')의 표현 형식이 강한 표현이 못됨을 볼 수 있으며, '-ㄹ 것'의 형식을 (13-2)에서처럼 서술문으로 표현했을 때는 극히 겸손한 명령(요청)이 됨을 볼 수 있다. (13-2)의 서술문은 直接言語行爲가 아니라 間接言語行爲이다. 이처럼 (13-1)의 a~d의 '-ㄹ 것'의 형식은 (a' ~ d')와 (13-2)의 a~d 형식보다는 훨씬 강한 명령(요청)을 나타낸다.¹⁸⁾ (13-1)은 청자 중심의 명령형인데 여기서 '-ㄹ 것'을 쓰는 것은 '-ㄹ 것'을 강하게 '명령한다'의 생략이다. 이에 비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4) a. 오후 두 시에 떠남←(a'~떠납니다)
 b. 기간이 지나면 접수치 않음←(b'~않습니다)

(14)는 화자 중심의 명령(요청)인데 이 때는 '-ㅁ'형과 '-ㄹ 것'형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ㅁ'형의 문장에 'denotic modal'을 넣어야 한다. 예컨대 "손대지 말 것←손대면 안 됨"이라든지 "공부 열심히 할 것←공부 열심히 해야 됨(함)" 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두 형식 중에서 '-ㄹ 것'이 '-ㅁ'형보다 더 강한 명령(요청)의 표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13-1)의 a~d가 강한 명령(요청)하는 말을 도와 끝맺게 하는 기능은 '것' 단독만의 기능이 아니고, 단지 통사 구조상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형 '-ㄹ' 형태소와 결합되어 그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강조, 확인하는 기능

- (15) a. 사랑 뒤의 { ㄱ. 휴식보다
 ㄴ. 휴식하는 것보다
 사랑 전의 { ㄱ. 휴식이
 ㄴ. 휴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흥분 상태에서는 사랑을 삼가는 것이 좋다.
 b.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 ㄱ. 인간이오.
 ㄴ. 인간인 것이오.

(15, a, b)에서 ㄱ과 ㄴ의 표현이 둘 다 사용되지만 ㄱ보다 ㄴ의 표현이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다. 그것은 '것'이 앞의 말 '휴식하는'을 더 강조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가는 것이'의 '것'은 속구조에서 {삼가는}의 객체로써의 代用表現으로 강조, 확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16) 작은 데서 큰 데까지 이르고 가까운 데서 먼 것에까지 이른다.

(16)의 '것'은 앞의 말 '먼'을 名詞化하여 강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것'은 통사 구조상

18) '-ㄹ 것'의 명령(요청)은 관공서의 公告文이나 시험 문제의 물음에 흔히 사용되는 형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高永根(1965: 102~103)은 '것'이 公開의 狀況에서는 명령의 기능을 지니는데, 이는 화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action) 遂行을 요구하는 명령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담배 피우지 말 것

* 12월 말까지 자진 납부할 것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화하여 강한 표현을 갖도록 하는 강조. 확인의 기능을 갖고 있다.

- (17) a. 그것이야말로 진짜일 것이다.
 b. 그래야만 체면이 차려진다는 것이다.
 c. 예술이란 것이 인생의 축도요, 행복이란 것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

(17)에서 (17, a, b)는 단정하는 강조요, (17, c)는 선행된 체언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17, a)는 “그것이야말로 진짜이다” (17, b)는 “그래야만 체면이 차려진다”로 표현하여도 훌륭한 단정문이 되나 여기서는 강조적 단정을 하기 위하여 ‘것’을 삽입하여 사용한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된다, “~ㄹ 것이다”의 표현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뜻(의미기능)이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17, c)는 “~이란 것”을 빼고 “예술은 인생의 축도요, 행복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로 해도 무방한 것을 선행어인 체언[예술, 행복] 자체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란 것” 형식을 취하여 더욱 강한 강조의 표현이 되게 한 것이다.¹⁹⁾

- (18) 미치것네, 미치것네, 신 내려 미치것네.

(18)에서 ‘것’은 일종의 語尾로 轉化되어 확인법으로 나타난 강조 기능을 갖고 있는 國語 叙法의 일종이다.

- (19) 정신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는 한, 그것이현재의 ㉠것에 관한 ㉡것이든, 과거의 ㉢것에 관한 ㉣것이든 미래의 ㉤것에 관한 ㉥것이든 관념으로부터 동일한 자극을 받는다.

위 예문 (19)에서 ㉠, ㉡, ㉢의 ‘것’은 강조, 지시(대용) 기능을 동시에 겸하고 있으며, ㉣, ㉤, ㉥의 ‘것’은 바로 뒤에 統畵된 어미 ‘~이든’의 문법적 기능으로 인한 나열(열거)의 기능을 갖게 된다. ‘것’이 갖는 이러한 기능 때문인지 흔히 단어의 뜻을 풀이할 때 ‘것’을 사용하고 있다.

- 例. **충고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²⁰⁾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국어 문장 중 주로 설명적인 작문[논설문, 설명문, 수필] 등에서 ‘것’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6) 名詞句 補文構成의 機能

“-는(은) 것”은 名詞句 補文構成으로 명사적인 기능을 遂行하게 하는 통사상의 기능이 있다. 李翊燮·任洪彬(1983: 288-289)은 名詞句 補文, 즉 관형절이 後行名詞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질 뿐 上位文(higher-sentence)에 대한 관계는 전적으로 補文名詞들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보문 구성

19) 전재호·박태권, 국어표현문법, 1982, pp. 75~76.

20) 서정수(1978)는 이를 主概念을 풀어서 말하는 설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복: 입을 것, 식량: 먹을 것, 폐물: 뚫을 것” 따위를 들었다.

에는 직접 보문과 간접 보문 구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것’은 문장상의 補文子 선택에 있어 직접 보문과 간접 보문을 취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의 제약이 따른다고 제시했다.²¹⁾

- (20) a. 그가 돌아온 것은 날이 저물어서였다.
 b. 그가 우리의 환심을 산 것은 선물을 줌으로써이다.

(20, a, b)는 소위 分裂文(cleft-sentence) 構成에 있어서는 서술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은 어느 것이나 명사 상당의 통사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 다음 (21)를 보자.

- (21) a. 나는 그가 책 사는 것을 도와 주었다.
 b.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21, a)의 名詞句 補文構成은 名詞化素 “-음, -기”가 이루는 (21, b)의 통사 구성과는 다르다. 名詞化와 名詞句 補文構成이 때로 類似한 의미를 가지는 듯이 보이는 것도 그 의미가 유사할 뿐이지 통사 구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것’ 補文構成과 ‘-음’ 名詞化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어느 문맥에서나 그 가치가 동일하여 ‘-음’과 ‘-는 것’이 자유롭게 交替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2) 그 돈으로 책 { ㄱ. 산 것을 / ㄴ. 샀을 } 후회한다.

(22)에 ㄱ을 ㄴ으로 바꿀 때 그 의미 차이는 적지않게 느껴진다. 그러기에 ‘-을 것’과 같은 補文構成은 ‘-음’ 명사화로 交替할 수 없게 된다.

朴秉洙(1974)는 名詞補文 구성의 분석에서 ‘것’과 命名動詞 ‘하다’의 관계를 論한 적이 있다.

- (23) a. 그는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 { ㉠-ㄱ / ㉡-ㄴ / ㉢-는 } 것 같다

- b. 그가 뇌물을 받았 { ㄱ. 다는 / ㄴ. 다고 하는 } + { 것 (=보도) / 것 (=소식) / 것 (=소문) / 것 (=사실) } 이 신문에 났다.²²⁾

21) a. 나는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 (직접보문)

b. *나는 해가 뜬다는 것을 보았다. (간접보문)

이 두 補文의 의미 차이를 보면 a는 내가 해가 뜨는 직접적인 현상을 보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대하여, b는 a의 내가 본 것과 동일한 해를 보았다는 뜻을 가지지 않는다. 만약에 b의 ‘보았다’가 ‘알았다’는 의미이거나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b는 非文이다. 李翊燮·任洪彬(1983 : 289)

22) (23. b)의 ㄱ, ㄴ 뒤에는 ‘것’이 올 수 있으나

(23, a)에서 ㉠은 추측(추정), ㉡은 시제(과거), ㉢은 진행상을 표시하는데 命名動詞 '하다'형 다음에 '것'이 사용되어 補文構成을 한 경우이고, (23. b)의 '것'은 '보도, 소식, 소문, 사실' 등으로 대신 쓰여 심층구조 속에서의 代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불완전명사 '것'은 명명동사 '하다'의 活用形 [할, 한, 하는……] 뒤에 결합되어 名詞句 補文構成의 기능을 하고 있다.

- (24) a. 사람이 죽는다는 것(→a' 사실, 현상, 진리…)이 나를 슬프게 한다.
- b. 그는 내가 온 것(→b' 사실, 사정, 소식, 소문…)을 알고 얘기를 그쳤다.
- c. 그가 변절했다는 것(→c' 사실, 소식, 소문…)은 믿기가 어렵다.

(24. a-c)에 쓰인 '것'을 李鴻培(1970), 梁演錫(1972)은 complementizer로 보았고 南基心(1972), 朴秉洙(1974)는 complementizer(補文素)가 아니고 補文名詞라고 하였다.

그런데, (24.a.b.c)에서 '것'의 의미기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葉선모(1979)는 (24. a-c)의 '것'이 가리키는 선행어가 文 안에 없기 때문에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앞의 내포문(embed sentence)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쓰였다. 즉 '것'은 앞의 내포문 전체를 대신한다 하여 代名詞의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24. a-c)의 '것'은 (→ a', b', c')의 말과 대등한 뜻을 가지며 그 말들(사실, 현상, 소식…)을 가리키는 명사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²³⁾ 그리고, '것'을 명사성으로 본 것은 이정민(1975), 양동휘(1976), 이익환(1979)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이들은 '것'을 '사실'의 의미로 파악하거나 '사실'의 代用形으로 파악했는데, 이 점에 대하여 강범모(1983)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는 “~(는)것” 또는 “-고 하는 것”의 '것'이 補文素 또는 다른 명사로부터의 代用形이 아니라 [o사실성], [o명제성], [o실현성]의 특성을 갖는 가장 중립적인 (불완전)명사(補文名詞)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중립적 의미 특성 때문에 '것'을 補文素 또는 보문소의 일부로 규정할 것 같다고 하면서 補文名詞와 補文素의 意味資質 分析에서 [+사실성]은 사실성이 있음(사실 보문을 이끔)…factive, [-사실성]은 비 사실(비사실 보문을 이끔)…non-factive, [o사실성]은 중립적임(보문의 선택에 따라 사실, 보문을 이끔)…indifferent or neutral한 것이다.

한 예로

- (25) 승호는 승아가 그 영화를
- | | | | | | | | | |
|--|------|------|----|------|----|------|---|-------|
| <table style="border: none;"> <tr><td style="padding-right: 5px;">ㄱ.</td><td>본 것을</td></tr> <tr><td style="padding-right: 5px;">ㄴ.</td><td>보았음을</td></tr> <tr><td style="padding-right: 5px;">ㄷ.</td><td>보았다고</td></tr> </table> | ㄱ. | 본 것을 | ㄴ. | 보았음을 | ㄷ. | 보았다고 | } | 보고했다. |
| ㄱ. | 본 것을 | | | | | | | |
| ㄴ. | 보았음을 | | | | | | | |
| ㄷ. | 보았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그가 뇌물을 받았 | { | <table style="border: none;"> <tr><td style="padding-right: 5px;">ㄱ.</td><td>다면</td></tr> <tr><td style="padding-right: 5px;">ㄴ.</td><td>다고 하면</td></tr> <tr><td style="padding-right: 5px;">ㄷ.</td><td>다는데</td></tr> <tr><td style="padding-right: 5px;">ㄹ.</td><td>다고 하는데</td></tr> </table> | ㄱ. | 다면 | ㄴ. | 다고 하면 | ㄷ. | 다는데 | ㄹ. | 다고 하는데 | } | 그는 응당 처벌되어야 한다. |
| ㄱ. | 다면 | | | | | | | | | | | |
| ㄴ. | 다고 하면 | | | | | | | | | | | |
| ㄷ. | 다는데 | | | | | | | | | | | |
| ㄹ. | 다고 하는데 | | | | | | | | | | | |

예문 ㄱ, ㄴ, ㄷ, ㄹ 뒤에는 '것'이 올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23) '것'이 代名詞的 구실을 한다는 葉선모의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양동휘(1976), 이익환(1979)에서는 '것'이 '사실'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일, 행위, 소리, 모양” 등이 代用化된 것이라고 하였다.
- a. 나는 새가 날아 가는 것 |모양, 광경, 장면, 동작…|을 보았다.
 - b. 철수가 우승했다는 것 |말, 보도, 보고, 소식, 주장…|이(가) 사실이다.

(25)에서 ㄱ의 ‘-는 것’에는 [+사실성], ㄴ의 ‘-음’에는 [0사실성], ㄷ의 ‘-고’에는 [-사실성]의 의미 자질을 부여할 수 있다.

洪思滿(1983 : 67)은 위의 補文과 引用文을 관련지워 언급하는 자리에서,

- (26-1) a. 그녀는 이혼당한 것을 고백했다 補文
 b. 그녀는 이혼당했다.
 (26-2) a. 그녀는 이혼당했다고 고백했다..... 引用文
 b. 그녀는 이혼당했다.

(26-1)에서 a는 b를 前提(presupposition) 하지만 (26-2)에서는 a가 b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主文의 동사(이혼당한)가 동일하다고 해도 補文名詞 ‘것’에 이끌린 補文 (26-1, a)과 引用標識 ‘-고’에 이끌린 引用文(26-2, a)²⁴⁾은 통사 구성상의 異質性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것’의 意味機能 (B)

‘것’은 그 의미가 인접 형식과의 統辭關係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27)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다.

例文 (27)에 쓰인 ‘것’은 그 자체가 단어로써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문법적인 의미기능을 발휘하여 문장 전체의 뜻에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다음의 (28)~(31)에 쓰인 ‘것’은 문법적 의미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것’ 단독으로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것’이 어떤 實質名詞(〈 〉안의 말들)와 같은 뜻(實辭)으로 代置될 수 있다.

- (28) a. 권력을 남용하면 될 것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것=일〉
 b. 글썽이나 한다고 남을 알보는 것은 아닐지? 〈것=일(짓)〉
 c. 일본은 사실상 우리에게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것=경우, 처지〉
 d. 음악과 그림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 〈것=경우, 쪽, 선택의 기능〉
 e. 우리 것을 버리고 서양 것을 취한 셈이다. 〈것=話題內容〉

※ 화제가 우리의 ‘고유 전통’에 관한 것이면 ‘것’은 ‘고유 전통’이 될 것이며, ‘음악’에 대한 것이면 ‘음악’을 가리키게 된다. 즉 話題의 내용을 뜻하게 된다.

24) 남기심(1971)은 인용문 해석에서

- a. 나는 그가 허영에 들떠 있다고 본다→a’. 나는 그가 허영에 들떠 있는 것으로 본다.
 b. 나는 그가 그때 열살이었다고 기억된다.→b’. 나는 그가 그때 열살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a. b는 類似引用文으로 a’, b’의 뜻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이상복(1983)은 a, b는 문장 구조면에서 인용문 구조와 비슷하나 a의 “그가 허영에 들떠 있다”와 b의 “그가 그때 열살이었다”는 실제로 말화된 것이 아니고 화자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思考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a, b는 피인용문의 인용 전달을 가능케하는 인용문의 네가지 전제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a, b는 인용문으로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이들 문장(a, b, a’, b’)은 인용문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표현했다고 하여 準引用文 또는 인용적 構文構造라고 하였다.

- f. 남성들에게 자꾸만 생각나는 것 세 가지??? 《것=對象(물건). 예를 들면 술, 담배, 여자》
- g. 여자 문제는 관용과 理性으로 해결하는 것이 남성의 참 멋이 아니겠는가? 《것=태도, 자세》
- h. 저 정도 떨어진 것은 맞칠 수 있다. 《것=곳, 거리, 장소, 물건...》
- (29) a.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다. 《것=전망, 조짐》
- b. 나는 모든 빚을 갚을 것이다. 《것=예정, 짐작, 결심, 생각》
- (30) a.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것=셈, 작정, 계획》
- b.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것=작정, 계획》
- (31) a. 불쌍한 [가없는, 바보같은, 간교한] 것들.
- b. 이것아, 갓난것에게 것을 물리고.....
- c. 요새 것들이 어디 사람이냐?
- d. 저것들도 눈치를 쬐 것 같다.
- e. 이리온, 귀여운 것아.

(31)에 쓰인 '것'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경멸하거나 얕잡아 이를 때 흔히 쓰인다. 때에 따라 '사람'을 뜻할 경우 '놈'이란 경멸조의 뜻이 있으며, b의 '갓난것'의 '것'은 일종의 인칭접미사로 轉化된 것이며, e의 경우는 영화 한 장면에서 대화 중 지시 대상물(고양이)을 지칭한 말로 일종의 의인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 '-ㄴ 것'과 '-ㄹ 것'의 對比

'것'이 나타나는 分布는 주로 용언의 관형형 (-ㄴ/-ㄹ) 뒤에 나타난다. 이는 불완전명사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것'이 자립명사(완전명사)가 되지 못하고 準自立名詞(불완전명사)라는 탓이다.²⁵⁾

- (32) a. 그는 문제를 해결하 $\left\{ \begin{array}{l} \textcircled{1}-ㄴ \\ \textcircled{2}-ㄴ \\ \textcircled{3}-는 \end{array} \right.$ 것 같다.
- b. 그는 그 그림을 보 $\left\{ \begin{array}{l} \textcircled{1}-ㄴ \\ \textcircled{2}-ㄴ \\ \textcircled{3}-는 \end{array} \right.$ 것 같다.

(32, a, b)에서 ①, ②, ③은 용언을 관형화하는데 사용되는 冠形化素 | -ㄴ |, | -ㄹ |, | -는 | 과의 의미기능 차이로 그 의미가 각각 달리 인식된다. 이 점에 대하여 沈在箕(1982: 340-350)는 동사의 관형화에서 관형화소 | -ㄴ |, | -ㄹ |은 그 認識樣相에 있어서 | -ㄴ |은 名詞化素 | -ㄴ |과 같이 [+결정성]을 표시하며, | -ㄹ |은 명사화소 | -기 |와 같이 [-결정성]을 표시하는데, 그 의미기능을 細分해 보면 인식 양상의 既定相[+결정성]과 時相의 [+完了性]을 나타내는 | -ㄴ

25) '것'은 자립성이 없는 의존형식(bounding form)이라 하더라도 構文單位로서의 자립명사와 같은 '等價的' 요소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構文上으로는 準自立形式(semi-free form)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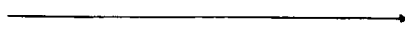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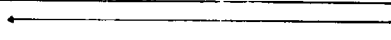
붉은 꽃 ←→ 붉은 것
자립명사. 의존형식

이때, 자립명사 '꽃'과 의존명사 '것'은 구문상 동가적 요소이다.

冠形化素와 인식 양상의 未定相[-결정성]과 시상의 [-완료성]을 나타내는 | -ㄴ | 관형화소가 있다. 그런데, 관형화소 | -ㄴ |, | -ㄹ | 은 인식 양상의 既定과 未定을 나타낼 때는 일관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時制를 나타낼 때는 경우에 따라 中和現象을 보인다.

o 그는 승아가 먹는 음식에 재를 뿌렸다.

에서 '먹는'의 의미는 ①(승아가) '日常으로 먹는 것'일 수도 있고, ②(재를 뿌린 순간에) '먹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먹는'은 中和現象으로 그 의미가 重義性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는 것'과 '-ㄴ 것'의 의미기능을 비교하면 (32, a, b)에서 ㉗의 '-ㄴ 것'은 發話時의 現시점에서 어떤 사실(내용)이 앞으로 일어나거나 생길 것을 豫示(見)해주는 의미기능을 갖고 있어서, 흔히 '-겠-'과 견주어 미래 사실에 대한 어떤 '豫象, 豫見, 推定, 意圖, 짐작'과 時相에서 '未定' 내지 '未完了' 등의 의미기능 중 어느 하나의 의미로 인식되어진다. 이에 反해 ㉘의 '-ㄴ 것'의 의미기능은 發話時的 現時點에서 그 이전에 이미 어떤 과거 사실(내용)이 생기거나 발생한 것임을 미루어 시제 형태소 '-았/었-'과 견주어 어떤 사실에 대한 과거의 일, 즉 "경험, 회생, 회고, 추억, 확인"과 판단에서 '斷定'과 '決定' 및 時制的 '완료성' 중 어느 하나의 의미기능으로 인식되어진다.²⁶⁾ 이 兩者가 인식되어지는 의미기능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ㄴ 것	-ㄹ 것
	
과거 사실(내용) 경험, 회상, 회고, 추억, 확인, 단정, 결정, 완료 중 어느 하나	미래 사실(내용) 예상, 예견, 추정, 의도, 미정, 미완료 중 어느 하나
	現 시 점 ↓

하여간 '-는 것'과 '-ㄴ 것'은 형태상 용언의 관형화를 만들기 위한 冠形化素를 취한 점은 같지만, 통사 기능상은 같지 않으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ㄴ 것'과 '-는 것'의 兩者에 있어서도 '-는 것'이 時制에서 中和現象으로 그 의미가 重義性을 갖고 있으므로 의미가 달리 인식된다.²⁷⁾

26) 단지 용언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른 의미 차이는 있으나 규칙을 정하기엔 어렵다.

a. 승호가 먹는 것이 적다. b. 승호가 먹는 것이 시원찮다.

a에서는 '것'이 '사물(음식)'의 의미를 b에서는 '사물(음식)'과 '행위'의 의미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행위'의 의미가 더 보편적인 듯하다.

이러한 차이는 '것' 다음에 결합되는 서술어(동사·형용사)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것'의 의미기능은 선행 또는 후행하는 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感知할 수 있다.

27) 앞의 본문 내용 (23, a)에서 박병수(1974)의 ㉗ '-ㄴ 것'은 추측(추정), ㉘ '-ㄴ 것'은 시제(과거) ㉙ '-는 것'은 진행상으로 본 것과, 고영근(1983)의 ㉗ '-ㄴ 것'이 미래시제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㉘ '-ㄴ 것'은 과거시제 '-았/었-'과 관련된다는 지적. 그리고, 강범모(1983)의 ㉗ /-는 것/의 [+사실성], [0명제성], ㉘ /-고 하는 것/의 [0사실성]·[+명제성]의 의미차질로 지적한 것 등을 참작할 것.

관계에 따라 문법적인 의미기능을 지니면서, 통사 관계에 따라 각기 多樣的 의미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미기능(B)의 (28)~(31) 예문의 경우처럼, '것'은 문법적인 의미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문장내에서는 '것' 단독으로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것'이 어떤 實證名詞와 같은 뜻[實辭]으로 代置될 수가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임을 알게 되었다.

IV. '것'의 用法

1. '것'의 使用實態와 原因

'것'의 사용실태를 문교부에서 1956년에 펴낸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잣기조사(語彙使用頻度調査)》와 한글학회에서 1981년에 펴낸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낱말 잣기조사》를 보면 이러하다.

문교부(1956) 편에서는 '것'의 사용 빈도 순위가 11번째이며, 한글학회(1981) 편에서는 14번째이다. 이 두 조사에서 토(조사)를 제외한 제홀로 독립해서 쓰이는 단어 [의존형식(bounding form)을 제외한 준자립 형식이 포함된 자립형식(free form)]만을 놓고 그 순위를 본다면, 문교부 조사에는 “이다-하다-것-있다”의 순서이며, 한글학회 조사에서는 “하다-있다-이다-보다-것-...” 순으로 나타난다. 독립해서 쓰이는 단어의 빈도 순위를 따지면 '것'이 세번째와 다섯번째로 국어 어휘 중

〈조사표〉

잣기차례	문교부(1956)		한글학회(1981)	
	단 어	잣기수	단 어	잣기수
1	을(토)	74,077	을(토)	5,942
2	에(토)	71,298	이(토)	3,420
3	의(토)	66,823	에(토)	3,405
4	이다(잡)	57,983	를(토)	3,212
5	이(토)	57,185	의(토)	2,789
6	는(토)	52,470	하다(움직)	2,745
7	하다(움직)	48,313	는(토)	2,720
8	를(토)	40,565	가(토)	2,540
9	은(토)	40,495	은(토)	2,352
10	가(토)	37,173	있다(그림)	2,152
11	<u>것</u> (이)	36,383	이다(잡)	1,642
12	도(토)	25,430	보다(움직)	1,609
13	있다(그림)	25,259	들(토)	1,599
14	으로(토)	19,872	<u>것</u> (이)	1,560
15	에서(토)	16,361	도(토)	1,499

※ 1. 토 : 토씨(조사) 잡 : 잡음씨(지정사), 움직 : 움직씨(동사),

이 : 이름씨(명사), 그림 : 그림씨(형용사)

2. 문교부 조사대상 총어휘수는 56,069개요, 한글학회는 국민학교 1~6학년 국어교과서에 쓰인 단어를 대상으로 한 9,636개로 나타나 있음.

그 사용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처럼 국어에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겠으나,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첫째, Ⅲ章에서 본 ‘것’의 의미기능 중 특히 ‘강한 명령(요청), 지시, 대응, 강조, 확인’을 끝맺게 하는 경우와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여 文을 연결시키는 데 편리한 점이다. 그리고, 한 문장(one sentence)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두번 이상 중복되어 많이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1) 보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저 돈 생각 뿐이다.

둘째, 문장에서 어떤 말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뜻을 지닌 단어이어서 뜻을 實在化하여 나타내기 곤란할 경우 ‘것’이 그 추상적인 단어와 결합하여 앞말의 뜻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는 일면도 있다.

예. |소중한, 귀중한, 아름다운| 것 ⇔ 의미의 구체화
추상적인 말

이는 추상적인 선행어의 불확실한 개념을 다소 구체적이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의미의 推現象이라 할 수 있다.

셋째, 文體의 差異로 인한 심리작용의 하나로 文語(글자말)가 口語(입말)를 지배하는 경우에 흔히 ‘것’이 사용되고 있다.

(2) “너의 친척되니?”

하고 묻는 것이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자꾸 묻는 것이었다.

(3) 한 사람의 명운을 높이 받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곰곰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까—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2)에서와 같이 “~것이다, ~것이였다” 등을 자주 쓰는데 좋지 않은 버릇이다. 그리고 (3)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된 말을 풀어놓고는 그것으로 끝맺지 않고 “—고 했습니다”를 붙여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한 것으로 얘기하는 식이다. 이는 우리말에서 口語가 아닌 文語가 부자연스럽게 쓰인 것으로 말보다 文字가 너무 우선되고 중시된 현상이 아닌가 본다.

네째,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놓칠 수 없는 것은 외국말 번역투의 영향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다음의 漢文, 英文 번역 경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漢文 翻譯의 경우

35) 제11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에서 최범훈 교수는 ‘것’이 오늘날은 첫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통계조사는 조사자의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제시한 통계조사(한글학회조사)는 어느 정도 制限的이기에 절대치는 될 수 없지만 단지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가령 어느 조사자가 본 논문에 쓰인 어휘를 조사하여 통계를 낸다면 ‘것’이 당연 우선 순위일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에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도 통계는 다를 수도 있다.

- (1) a. 君子務知大者遠者，小人務知小者近者
 군자는 큰 것과 먼 것을 알려고 힘쓰며,
 소인은 작은 것과 코앞의 것을 알려고 힘쓴다.
 ※ '者'의 번역을 '것' 대신 '일'로 보아도 무방하다.
- b. 速去！不者，且見辱
 빨리 가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욕을 당하리라.
 ※ '者'가 小句文의 後面에 쓰여 假定句文일 경우는 '-것'으로 번역되어진다.
- c. 道者，文之根本，文者 道之枝葉
 ㄱ. 道라고 하는 것은(ㄴ. 道는) 文의 근본이요,
 ㄴ. 文이라 하는 것은(ㄴ. 文은) 道의 枝葉이다.
 ※ ㄱ과 ㄴ은 둘다 무방하다. 그러나 ㄴ보다는 ㄱ의 번역이 강조된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 d. 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되고, 권력을 쓰는 사람은 남한테 다스림을 당하게 된다.
 ※ d의 '者'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a~c의 '者'가 '것'으로 번역되는 것과 다르다.
- (2) a. 所求不遂，所如輒阻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던 것도 문득 막힌다.
- b. 無所往而不自得
 가서 저절로 깨닫지 못한 것은 없다.
 ※ “無所~不~”의 형식으로 이중 否定句文에는 긍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句法으로 쓰인 경우이다.
- (3) a. 君子之愛人也，以德
 군자가 사람을 ㄱ. 사랑하는 것은(ㄴ. 사랑함은) 德으로써 한다.
- b. 孤之有孔明，猶魚之有水也
 내가 孔明을 가진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같다.
 ※ '之'가 주어와 설명어 사이에서 連接關係詞로 쓰일 경우, '것'으로 번역되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a, b에서 '之'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之'字를 사용하여 앞부분을 詞組로 바꾼 다음 그것을 설명어로 만듭으로써 보다 강조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 (4) a. 人類之所以，萬物之靈者。尚智而不尚力也。
 인류가 만물의 영장인 ㄱ. 것은 ㄴ. 까닭은 지혜를 숭상하고 힘(권력)을 숭상하지 않은 때문이다.
 ※ '以'字가 '所'字와 결합하여 '所以'라는 熟語로 句文에 쓰인 경우에는 “~하는 것(까닭)”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 b. 何以爲家？無以爲家(無所以爲家之資)
 무엇으로써 집을 지을 것인가? 집을 지을 것이 없다.
- c. 何以教之？有以教之(有所以教之言)
 무엇으로써 가르칠 것인가? 가르칠 것이 없다.
 ※ '以'는 '無·有'字와 결합하여 '無以·有以'로 쓰일 경우는 '-것'으로 번역되어진다.
- (5) a. 求人孰若求己？
 사람(남)을 구하는 것이 자기를 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득이 될까?
- b. 與其有譽於前，孰若無毀於其後？
 앞에서 칭찬이 있는 것보다는(있기보다는) 뒤에서 체방이 없는 것이 어떠하나?
 ※ '孰'字가 선택의 의미로 쓰일 경우 “~하는 것이 좋다(득이 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며, '孰若, 孰與'의 속어로서 비교하는 말을 사용한다.
- (6) a. 飢則思食，渴則思飲。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생각하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음식)을 생각한다.

- b. 求則得之, 不求則弗得也.
 구할 것 같으면(구한다면) 얻고,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구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한다.
 ※ '則'字가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와 시간성에 무관한 假定性을 내포하여 '~것'으로 번역되어지는 수가 있다.
- (7) a. 食小事多(煩)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다(번거롭다).
- b. 罪莫大於不孝
 ㄱ.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다.
 ㄴ. 불효보다 큰 것(막대한 죄)이 없다.
- c. 若不修德……
 ㄱ. 만약 덕이란 것을 닦지 않는다면…
 ㄴ. 만약 덕을 닦지 않는다면…

(7)에서 a, b, c의 번역 경우 어느 특정한 字가 '것'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原文 번역시 그냥 '~것'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b, c의 번역문처럼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3. 英文 翻譯의 경우

- (1) All of them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 (2) It is wrong to tell a lie(=to tell a lie is wrong)
- (3) It is difficult for me to master the foreign language in a few weeks.
 ※ It~for~to 구문이 의미상 주어를 취할 때 '것'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점은 국어 문장에서 '것'이 형식의 주어 구실을 하는 경우와 비슷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 (4) It is true that he is dead.
- (5) It is with life as with a voyage
- (6) It will be something before he gets well
- (7)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quite another.
- (8) Nothing is so important as friendship.
- (9) He has much experience, to say nothing of learning.
- (10) His being a foreigner has complicated the matter.
- (11)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 (12) ① our teacher told us a story, which was very interesting.
 ※ 관계대명사(which)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대명사'로 분해되어 '그리고 그것은'으로 번역된다.
 ② We were over taken by night on the way. and what was worse, it began to rain.
- (13) ① I'd like a pond of apples which ones.
 The Red one.(ones, one : 것)
 ② The new designs are much better than old ones.(ones : 것)
 ③ What is the best thing to put into a pie?(thing : 것)
 ※ 例文 (1)~(12)까지는 밑줄친 부분이 '-것'으로 해석되고, (13)에서는 어느 특정 단어가 '것'으로 번역되는 경우임.

이러한 漢文이나 英文을 번역할 경우 대체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흔히 보게 된다. 이는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번역 차용시 한국어로 다시 번역 될 때, 표현 구조상의 變化로 인한 일종의

언어 심리적인 표현의 차이인지도 모른다.³⁶⁾

V. 結 論

1. 本稿의 중심 문제였던 '것'의 意味機能을 통사상 先·後行에 결합되는 인접 형식의 종류에 따라, 統辭意味와 統辭形態面에서 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論議된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① '것'은 그 앞뒤의 말들과 어울려 先行語나 先行文章을 지시하거나, 代用하며, 문장을 서술(설명)하거나, 강조·확인을 하며, 강한 명령(요청)을 끝맺게 하는 의미 기능과 名詞句 補文構成의 기능을 하는 등 문맥에서 각기 다양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流動性이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것'이 문맥에서 어떤 實質名詞의 뜻(實辭)으로 代置되는 경우가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inclusive)이다.

③ '것'이 통사 결합상 그 類型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기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것' 자체가 의미(성격)를 달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사적 구성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 '것' 단독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암시적인 것'일 뿐이다. 다만 앞뒤의 말들과의 주위 환경에 따라 기능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것'이 불완전명사라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⑤ '것'이 때로는 先·後行 형식과의 통합 관계가 아주 굳어져 관용적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때는 새로운 형태로서의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것'이 變形되어 나타날 때는 '것' 본디 형태의 의미와 의미 차이가 생긴다.

⑥ '것'은 문맥에서 '것' 스스로가 固有意義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他語辭에 대하여 補助 또는 補文 구실을 하는 주된 의미기능이 있다. 그리고 '것'은 문장에서 추상적인 선행어의 불확실한 뜻(개념)을 다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주는 의미의 推移現象이 있어 '것'의 의미 기술이 쉽지 않다.

⑦ 이와 같은 여러가지 多樣的 의미기능 등으로 인하여 '것'의 쓰임이 실제 국어 어휘 중에서 그 사용 빈도수가 높으며, 漢文, 英文 등 외국어 번역시에 많이 나타나는, 즉 외국어 번역투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어에 많이 쓰이고 있는 基礎語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 지금까지, 現代國語의 '것'에 대하여 그 본질을 살핀 것은, '것'에 대한 문제를 완전 해결했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提起했다고 하는 편이 더욱 온당할런지 모른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볼 때 '것'에 대하여 統辭·意味論的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것' 자체의 形態論的 접근에서는 未盡한 편이다. 이 점은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기면서, '것'의 構造的 樣相이 한층 더 뚜렷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36) 제11회 국어학회 공동연구 발표장에서 宋敏 교수는 “이다→것이다”와 “-한 것이다, (-던 것이다)”와 같은 統辭構造도 일본어의 번역 차용이 거의 분명하여 소위 일본식 표현의 한 영향이며, 외국어 번역 과정에서 오는 한 경향(현상)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며, 다음 논문까지 보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宋敏,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 성심여대 논문집 10집, 1979.

- ※ 지금까지 참고로 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 특성”, *語學研究* 1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高永根(1965), 현대국어의 叙法體系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 _____ (1970), “現代國語의 準自立形式에 대한 연구”, *語學研究* VI-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74), 국어 접미사 연구, 光文社.
- _____ (1983),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탑출판사.
- 김계곤(197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한글 제157호.
- 金完鎭(1970), “似而不同 斷想”, 국어국문학 49-50 합병호.
-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기심(1972), 현대국어의 시제에 관한 문제, 탑출판사.
- _____ (1973), 國語完形 補文法 研究, 계명대 출판부.
- 문교부 편(197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짚기조사.
- 朴秉洙(1974), “韓國語 名詞 補文構造의 分析”, 문법연구 1집, 문법연구회.
- 徐正株(1969), “국어의 의존명사의 변형생성 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42, 43 합병호.
- _____ (1978), “‘-ㄴ 것’에 관하여”, 국어학 6호. 국어학회.
- 成善錫(1976), “‘-ㄴ 것’과 ‘-ㄴ 것’의 의미 비교”, 김형규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 _____ (1979), “經驗과 推定”, 문법연구 4집. 문법연구회.
- 宋 敏(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 “성심여대 논문 집 10집.
- 손호민(1978), “긴 形과 짧은 形”. 어학연구. 14-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沈在箕(1982), 國語 語彙論, 集文堂.
- 沈在箕 외 2명(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 梁演錫(1976), “韓國語 樣相의 話用論(I)” 언어 제 1권 1호, 한국언어학회.
- 어문학연구회(1969). 國語學概論, 서울, 수도출판사.
- 염선모(1979), “불완전명사에 대하여” 余泉徐炳國博士回早紀念論文集, 형설출판사.
- 李基用(1978), “言語와 推定” 국어학 6호.
- 李南淳(1981), “‘ㄴ 것’과 ‘ㄴ 것’”, 관악어문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상복(1983),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국어의 통사·의미론, 고영근, 남기심 공편, 탑출판사.
- 李崇寧(1975), “中世國語의 ‘것’의 연구”, 진단학보 제39호, 진단학회.
- 이익섭·임흥빈 共著(1983), 國語文法論, 학연사.
- 이정민(1975),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樣相構造” 현대국어문법연구 논문선(4), 계명대출판부.
- 李熙昇(1955), 國語學概說, 민중서관.
- 任洪彬(1974), “명사화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호.
- _____ (1980), “|것|과 대상성”, 한글 170호. 한글학회.
- 전재호·박태권 공저(1982), 국어 표현 문법, 이우출판사.
- 최규일(1984), “한국어 화용론의 記述과 의미 해석” 새걸 박태권 선생 회갑기념논총.
- 최현배(1964), 우리말본 (세번째 고침), 정음사.,
- 한글학회(1981), (국민학교 국어교과서) 낱말 짚기 조사.
- 허 발(1979), 낱말발의 이론, 고려대 출판부.
- 洪思滿(1983), 國語特殊助詞論, 학문사.
- Lee, Ik-Hwan(1979), Koran Particles. Complements and Question: A Montague Grammar Approach,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ee, Hong-Bae(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 Lyons, John(1981), Language, Meaning & Context, Fontana Paperbacks.
- Ramstedt, G. J. C.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Yang, Dong-Whee(1976) "On Complementizers in Korean" 언어 1-2.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서울:백합사.

Summary

The Semantic Function and Use of the Word {kös} in Korean

Choi, Kyu-il

The study is to investigate a variety of semantic functions of the word 것 {kös} in modern Korean according to the kinds of adjacency in its syntactic combinations with other words, chiefly keeping in mind its syntactic meaning and its morphological(phonemic) aspects, and thus to elucidate the nature of this word. The results obtained here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word {kös} is to be said to have flexibility with various kinds of semantic functions ; i.e., it is used to refer to or anaphora for the preceding word or sentence, to describe or to emphasize and confirm the sentences, to make an end of strong demand(i.e,request), and to do the function of a nominal complement as well.

2. The word {kös} is quite inclusive in meaning, for it is sometimes used to have the meaning of a substantive noun in the sentence.

3. In various sentences, the word {kös} seems to have a different semantic function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its syntactic combination. The reason for this seemingly different function does, however, not originate from the different meanings of the word itself, but from the variety of its syntactic status.

4. In context, the word {kös} does not have its unique meaning, but it plays the role of an auxiliary or a complement for the other words. Moreover, it has the function of shift of meaning, which makes some what concrete and clear the notion of the preceding abstract word.

5. The various semantic functions and the effect of a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into Korean make {kö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basic word in Korean.